**요나** 1/14/21

**저자와 기록연대**: 본서의 주인공인 요나로 그 이름의 뜻은 “비둘기”이며, 어리석고 지혜가 없다는 의미(호세아 7:11)가 있어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적 무지를 암시한다. 아밋대의 아들 요나는 스불론 지방 가드혜벨의 선지자로 아모스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이며 주전 800-750년 경에 이스라엘 (북왕국)에서 사역했다(왕하14:25). 본서는 그의 사역 말기인 주전 750년 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(북왕국 이스라엘이 앗수르에게 멸망당하기 전).

**배경**: 요나의 사역기간 중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아람 왕국이 앗수르 제국에게 패할 때, 아람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회복하고 최대의 번영을 누리게 되자, 매우 심한 영적 교만에 빠진다 (암6:1). 하나님께서 아모스와 호세아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교만과 죄악을 책망하시고 “다메석 밖으로”(암5:27) 포로로 잡혀갈 것을 선언하신다(호9:3, 10:6, 11:5).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(앗수르의 수도)로 보내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시고 회개하도록 경고하셨다.

**목적**: 이스라엘의 교만과 사명을 망각한 것을 책망하시고 모든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신 것. 주제 성구는 욘2:9 “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.”

**개요**

1. 요나가 사명을 피하여 도망함 (1-2장)

가. 요나의 소명, 도주, 징계와 구원 (1장)

나. 요나의 감사 기도 (2장)

2. 요나가 억지로 사명을 이룸 (3-4장)

가. 요나의 소명 회복과 니느웨의 회개-구원 (3장)

나. 요나의 기도/분노와 하나님의 책망 (4장)